

나주시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총력...주민 동참 독려

4월까지 읍·면·동 20곳 설명회

바다 수소 원료 에너지 생산 장치

내년 상반기 과기부 공모 도전

‘차세대 에너지 선도 도시’를 내건 나주시가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에 사활을 걸었다.

나주시는 지난 22일을 반남면을 시작으로 오는 4월까지 읍·면·동 20곳에서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설명회’를 열어 주민 참여를 독려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인공태양’은 바닷물 속 수소를 원료로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배출 없이 대용량의 핵융합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청정에너지 생산 장치이다.

수소 1g으로 석유 8t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갈돼가는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탄소중립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불리고 있다.

연료공급을 중단하면 즉시 가동이 중단되기에

폭발이나 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것이 장점이다.

나주시가 유치를 나선 시설은 본격적인 기술 상용화에 필요한 인공태양을 연구하고 자료를 축적해 실증하기 위한 연구시설이다.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나주시는 에너지산업 분야 연구·개발의 최적 요건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는 국내 유일 에너지 분야 특화대학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가 있다. 에너지공대는 지난 2022년부터 인공태양 8대 핵심 기술 중 하나인 ‘초전도 도체’ 기술 개발에 필요한 시험설비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설비는 오는 2027년 가동될 예정이다.

혁신도시를 품은 나주시에는 과학기술 전문인력이 양성되고 있고, 한국전력을 포함한 전력그룹사가 있는 점이 특징이다.

최근 20년간 규모 3.0 이상 지진이 발생하지 않은 지질 안정성도 내세울 점이다. 지질학적으로 나주시역은 화강암질 기반을 지니고 있다.

나주시는 전남도와 함께 내년 상반기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공모에 도전할 계획이다. 과기부는 올해 안에 핵융합 연구·개발(R&D) 계획을 수립한다.

4월까지 이어지는 주민 설명회에서는 주민 눈높이에 맞춰 인공태양 연구시설을 설명하고 주민 관심도를 높일 계획이다.

‘태양과 인공태양의 비교’, 인공태양 연구시설 ‘구축 필요성’, ‘나주 유치의 당위성’, ‘유치를 위한 추진사항’, ‘유치 때 파급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주민 설명회를 계기로 인공태양 연구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와 수용성을 높여 향후 과기부 부처 선정 과정에서 유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갈 없는 무한 청정 에너지원이자 탄소중립을 선도할 에너지 수도 나주의 미래를 밝힐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를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제29회 화순 한국난 전국대회 대상작 홍화소심.

화순서 전국 최대 규모 ‘난 명품 박람회’

3월 9~10일 하니움 스포츠센터

화순에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난 명품박람회가 개최된다.

화순군은 ‘2024 화순 난 명품박람회’가 오는 3월 9~10일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화순군이 주최하고 (사)한국난문화협회와 화순난연합회 등 7개 단체가 공동주관하는 이번 박람회에는 소심, 주급화, 홍화 등 난 1000여분이 전시돼 한국 자생난의 정보교류의 장이 될 전망이다.

또 중국 호북성의 국란금배, 수주시난화협회

등이 중국난 전시를 희망해 별도 중구관이 운영될 예정이다.

우수 작품 시상식은 9일 오후 2시 개막식과 함께 진행되며 이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진행으로 난 경매도 열린다.

화순 난 명품박람회는 한국자생난의 우수성을 알리고 난 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가 한국 자생난의 보고인 화순을 알리고 반려식물로서 난의 가치를 소개하는 장이 될 것이다”며 “한국 난 산업의 시장 개척에 앞장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강진·해남 원주이씨 호국정신 재조명...최초의병 이남 업적 선양

3월8일 강진아트홀서 학술발표회

우리 지역 의병 역사와 이를 주도한 거문의 충절 활동을 규명하기 위한 학술발표회가 열린다.

강진군 등에 따르면 오는 3월8일 강진군아트홀에서 ‘최초의병 이남(李楠) 선양사업회’ 창립총회와 함께 ‘강진·해남 원주이씨의 충절(忠節) 활동’을 살펴보는 학술발표회가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전남도가 2025년 개관을 목표로 ‘남도병역사박물관’ 건립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맞춰 남도 의병의 구국 충혼을 알리고 의병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마련됐다. 을묘왜변과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 조선시대에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의安危를 돌보지 않고 의병을 일으켜 나라를 구하려 했던 호남 사람들의 절개와 의리를 되새기고자 했다.

특히 이번 학술발표회에서는 임진왜란보다 40여년 앞서 해남 달랑성 일대에서 발생한 을묘왜변과 강진 성전에서 봉기한 최초 의병 이남에 대해 조명하고, 강진·해남 원주이씨의 호국정신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명종실록’ 등 자료에는 강진 성전에 거주하고 있던 이남은 을묘왜변 때 무장 현감을 퇴임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가솔들과 장정들을 모집해 전투에 나가 싸우다 전사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남의 분관은 원주이씨로 해남 마산면에서 태

어나 무과급제 후 강진의 도강 조씨 집안과 혼사를 하게 되면서 강진에서 살았으며 오늘날까지 후손들은 동족촌(同族村)을 이루어 양 지역에 살고 있다.

이남 선양사업회 관계자는 “을묘왜변에서부터 수많은 남도병들의 이름 없는 혼(魂)은 불의(不義)에 맞서고, 때로는 외세 침탈에 저항한 온충절(忠節)을 보여주며 우리나라 현대사에 계승됐다”며 “이번 학술발표회를 통해 이러한 호국정신(護國精神)은 다시 살아나 지금까지도 남도민의 마음에 면면히 흐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강진군 ‘林과 함께 3일 살기’

전국서 16명 참가

주작산 숲의 매력에 흠뻑

강진군이 도시민 유입을 위해 마련한 ‘임(林)과 함께 3일 살기’를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시범 운영했다.

강진 주작산 자연휴양림에서 열린 ‘임과 함께 3일 살기’에는 총 16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광주와 창원, 대구, 평택,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신청했다.

이 행사는 휴양림에서 2박 3일간 숙박하며 숲속 등반과 현장 체험을 하며 숲의 매력을 느끼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올해 상반기는 3월부터 6월, 하반기에는 9월부터 11월까지 수·금요일 운영할 방침이다.

첫째 날인 26일에는 입교식을 하고 숲속 등반, 숲 체험, 야외 공연 등을 진행했다.

둘째 날에는 다산초당, 백련사 동백숲을 거닐며 산속 여유를 즐겼다. 또 청자 찻잔을 조각하고 한식 문화를 체험했다.



강진 ‘임(林)과 함께 3일 살기’ 시범 행사 참가자들이 주작산 자연휴양림에서 버스킹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마지막 날에는 백운동원림을 찾아 설록다원을 감상했다.

강진원 강진군은 “이번 시범 운영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들이 일상 속에서 벗어나 지친 심신을

달랬길 바란다”며 “문화 관광 자원이 곧 군민의 소득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장성군 소재 초·중·고 신입생에 입학 축하금

장성군이 올해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에 ‘입학 축하금’을 지원한다.

‘입학축하금’은 초등학생 10만원,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에 30만원의 입학축하금을 지급하는 장성군 자체 공약사업이다. 민선8기 출범 이후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입학일 기준 장성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이며 장성지역에 소재

한 초·중·고 입학생이다.

신청 기간은 3월4일부터 22일까지로,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신분증을 지참해 주所知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축하금은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를 위해 전액 장성사랑상품권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장성군은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4월 초부터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담양 창평고 서울대 합격 광주·전남 최다

연·고대 22명 등 우수한 실적

다양한 교육과정으로 성과 일궈

담양 창평고가 올해 대학 입시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뒀다.

창평고등학교에 따르면 2024년도 대학 입시 결과 서울대 8명(의예과 포함), 의학 계열 16명(의예 8, 치의예 2, 한의예 2, 약학과 4), 경찰대 4명, 사관학교 15명, 과학기술원 6명(카이스트 포함), 포스텍 3명, 연·고대 22명 등이 합격했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대의 경우 수시로 4명, 정시에서 4명이 합격해 학교 수업만으로 수시와 정시를 동시에 대비하는 창평고만의 특성을 살려 이상적 성과를 거뒀다.

창평고는 입학 단계에서부터 교사 후견인 제도를 시행해 신입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고, 동문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진로진학멘토링(대학탐방)을 실시하는 등 자기 주도성과 도전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창의 융합·인문학 프로그램 시행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비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한 것이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창평고는 또 의대 정원 확대가 시작되는 2025년도 대학입시와 1등급 비율이 10%까지 늘어나는 내신 5등급제, 선택과목 없이 치러지는 2028년도 등 변화하는 입시 제도가 학교에 유리한 상황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하고 앞으로 좋은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 환경개선사업으로 인공지능·정보 교육에 특화된 AI 교실과 과학 실험실 등 교과 특성에 맞는 최신 설비를 갖춰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하고 탐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대학에서 도입하는 비대면 면접을 대비하기 위해 인공지능 면접 시스템을 갖추어 학생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 올리고 있다.

이운상 창평고 교장은 “학생들이 학업이나 과외 등 사교육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학교의 다양한 교육과정과 효율적 자기주도학습 시간으로 학생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공부하고 있는 점이 높은 성취도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n@

함평군 미래 발전사업

추진현황 점검 보고회

함평군이 ‘미래 첨단 신도시’ 조성 등 지역발전 위한 사업들의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함평군은 최근 이상익 함평군수 주재로 ‘함평 미래 지역발전 비전사업 추진현황 점검 보고회’를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초 함평 미래 사업을 발표한 뒤 6개월이 지나 종합적인 진행 상황과 문제점, 대안 등을 점검했다.

‘미래 첨단 신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전남 개발공사 4억여원을 투입해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 축산정책과는 인공지능(AI) 첨단 축산업 융복합 밸리 조성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을 지난해 12월 발주했다.

함평만에 해양관광 중심지를 조성하기 위한 연안 개발 사업들도 중앙부처 공모에 지원하며 자원 확보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함평군은 도심 중추 핵력을 확장하기 위한 각종 기반시설(SOC)과 국가·광역 도로개발 계획도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116억원 규모 주포항 어촌신활력 증진사업과 20억원 규모 공공승마장 조성 등 일부 사업들은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최근 선정돼 추진에 탄력을 받았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장흥군 3·1절 맞아 독립유공자 가족 위문

장흥군이 3·1절 105주년을 기념해 지난 26일부터 사흘간 독립유공자 가족을 찾아 위문품을 전했다.

<사진>

이번 방문에서는 모두 15세대를 찾아 유족을 위로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 가운데 지난 1934년 장흥군 남면에서 비밀결사 전남농농운동협의회에 가입해 활동하고 2020

년 대통령 표창으로 추서된 고(故) 김한태 선생의 유족도 포함됐다.

장흥군 직원들은 해당 가정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하고 예우를 갖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장흥군 관계자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선열들을 기억하고 유족들의 예우 증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